



어진 이를 높이고 선비를 기르다

국립전주박물관, 오늘부터 8월 30일까지 특별전 '한국의 서원'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1주년 기념

국립전주박물관(관장 천진기)은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이사장 이배용)과 공동으로 특별전 '서원, 어진 이를 높이고 선비를 기르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30일부터 8월 3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전시는 9개 서원 및 주요 박물관의 중요 문화재를 한 자리에 모아 서원의 세계유산적 가치와 우수성을 보여주고, 조선시대 대표 교육기관인 서원을 중심으로 조선시대를 이끈 지도자인 선비의 정신을 조명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이 전시에서는 '안향초상(安享肖像)'(국보 제111호, 소수박물관 소장), '송시열 초상(宋時烈肖像)'(국보 제239호,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계상정거도(溪上靜居圖)'(보물 제585호, 삼성미술관 리움) 등 국보 2건, 보물 19건 등 평소 쉽게 만나기 어려운 중요한 유물들을 볼 수 있는 기회다. 2019년 7월 10일 아제라비안 바쿠에서 개최

된 제43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한국의 서원 9곳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했다. 등재 서원은 영주 소수서원, 함양 남계서원, 경주 옥산서원, 안동 도산서원, 장성 필암서원, 달성 도동서원, 안동 병산서원, 정읍 무성서원, 논산 돈암서원이다. 유네스코는 9개 서원이 성리학의 범주 안에서 각 지역에서 상황에 맞게 저마다의 특색을 발전시키고 보존했고, 이러한 특성이 성리학 개념이 한국의 여건에 맞게 변화하는 역사적 과정을 보여준다고 하며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 OUV)를 인정했다. 이번 특별전에서는 국가가 서원에 내린 사액 현판, 각 서원에서 모신 대표 유학자의 초상과 그들의 정신이 담겨있는 유품, 서원 입학과 교육 과정, 후배 선비들이 서원을 방문해 남긴 그림과 글, 책과 책판을 보관한 서원의 보물창

고 장관과, 민인의 뜻을 모아 왕에게 전달한 선비들의 사회 참여와 정신을 담은 만민소, 현재까지 이어지는 서원의 제향 의례 등 서원과 선비에 관한 종합적인 모습을 만날 수 있다. 특히, 선비의 고장 전주에서 서원과 조선 선비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다. 국립전주박물관 관계자는 "옛 선비들이 호연지기를 기르던 소수서원의 취한대(淸澗臺)처럼 이번 특별전을 관람하며 아름다운 문화유산 서원을 느끼고, 자연과 인간의 조화, 물질적인 성공보다는 소용, 나눔과 배려를 말하는 선비들의 정신을 떠올리며 잠시 쉬어갈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 1. 안향 초상
- 2. 계상정거도
- 3. 송시열 초상

'나이는 무슨 맛일까?'

순창 적성 출신 최준표 시인, 첫 동시집 발간



전북 순창 적성면 임동마을 출신 최준표 시인이 '나이는 무슨 맛일까?'라는 첫 동시집을 발간했다. 이 시집은 최 작가가 어린시절 적성에서 지리면서 맑고 티없는 초등학생의 시선으로, 그 시절을 되짚어 보며 써 내려간 동시를 담았다. 특히, 홍시, 호박넝쿨, 과일, 눈발, 소금쟁이 등 작품의 소재가 섬진강을 배경으로

순창과 연계되어 있어 그 당시 이곳에서 자랐던 청년층에게 아련한 향수를 불러 일으킨다. 최 시인은 "밥하늘의 별들을 두손에 가득 담고 싶은 어린아이의 동심의 마음으로 시집을 발간했다"는 소감을 밝혔다. 그는 자신의 과거 '그 시절'을 살아가고 있는 후배들을 위해 모교인 적성초등학교에 동시집을 전달했다. 한편 그는 적성초등학교 41회 졸업생으로, 서정문학 동시시 등단을 시작으로 현재 한국문인협회 회원, 신안문화회 회원, 목천문화회 회원, 성동문인협회 회원, 다슬문학회 영성국장 등으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도내 문화예술인 재난극복 돕는다

전북문화관광재단, 총 4억원 198건 추가 선정... 장르별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기전, 이하 재단)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창작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문화예술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2020 전라북도 예술인 재난극복 및 공연예술창작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0 전라북도 예술인 재난극복 지원사업'은 올해 초 진행했던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의 미선정 사업 중 차순위 사업을 추가로 선정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금은 총 4억원으로 198건이 추가 선정돼 장르별 최소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북도예술회관 전경

이 사업은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의 지원금이 부족하다는 예술계의 민원과 코로나19로 예술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들을 위해 마련된 예산이다. 선정 결과는 재단 홈페이지(www.jct.or.kr) 공모지원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7월 31일까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2020 공연예술창작활성화 지원사업'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17개 공연문화재단과 협력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원금은 총 3억 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해 문화예술 분야 중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공연예술분야의 창작발표를 지원한다. 접수는 7월 8일까지며,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지원 대상은 도내 소재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의 창작 및 공연 활동을 전문적으로 행하는 공연예술 단체 총 30개 단체를 선정하여 단체별 1천만 원씩을 지원한다. 초연 창작품 개발 공연 또는 기존 우수작품 레퍼토리 공연 모두 지원이 가능하며, 공연 실황영상 제작이나 온라인 매체를 통한 공연 중계 등 무관중 온라인 공연도 지원이 가능하다. 이번 공모에는 코로나19 피해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아동·청소년극의 경우 가산점이 부여된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 공모지원 게시판(http://www.jct.or.kr/community/business)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장은성 기자



(사)관광경영학회(회장 류인평)는 최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빅데이터 기반의 문화정책을 통한 디지털 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빅데이터 기반 문화정책 통한 디지털 산업 육성

관광경영학회, 토론회 개최 (사)관광경영학회(회장 류인평)는 최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빅데이터 기반의 문화정책을 통한 디지털 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문화 빅데이터 플랫폼이 뉴노멀 시대와 같이 급격하게 변하는 현 상황에서 문화정책들과 문화사업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문화 빅데이터를 통해 시민 생활에 맞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사단법인관광경영학회, 한국문화정보원, 한국국정관리학회, 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에서 공동으로 주관한 가운데 류인평 회장을 비롯한 학계 및 각 분야 전문가들이 주제발표와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날 한국문화정보원 이권수 부장은 첫 번째 주제발표로 '문화 빅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한 과학적 문화정책 수립방안'에서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데이터를 국민의 문화 생활의 최전선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문화 빅데이터를 통한 기술과 문화 지원 융합, 역량

강화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명지대학교 최현선 교수는 두 번째 주제발표로 '문화빅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문화산업 육성과 활성화 방안'에서 문화산업 정책방향의 수렴적, 개방적 조직 체계로의 전환을 통해 모든 분야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문화 뉴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은성 기자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김제풍류, 조은성의 춤 '사람 몸짓 하나' 공연 성료

김제풍류, 조은성의 춤 '사람 몸짓 하나'가 최근, 동학농민혁명 원평김장소 야외마당에서 조은성 예술 총감독의 기획과 연출로 전북도민들에게 선을 보였다. 코로나19로 거리두기를 유지한 150개의 야외객석은 관객들의 성황으로 만석이 됐다. 이번 행사는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김제지부가 주관하고 전북도가 후원했으며, 스포라노 김진희 성악가와 국악단체 해찬솔의 사물놀이도 특별 출연 무대에 올랐다. 이날 공연은 기념들의 한과 훈이 담긴 교방수전춤을 첫 무대로 애국심으로 연결되는 검무, 모든 춤의 기본이 되는 굿거리 춤이 재연됐으며, 풍요로운 농경문화의 김제지역에서 백중날 기념들이 화려한 복색과 치장으로 추었던 교방춤과 남성들의 춤인 선비춤은 엄격하

고도 여유로운 선비들의 낭만을 도로 자락에 담아 우려한 춤사위가 무대를 가득 채웠다. 특히 농악에 쓰이는 호적과 구름이 가미되어 김제지역만의 고유한 특성을 잘 살린 호적구름춤은 격조 있는 춤사위로 관객들의 갈채를 받았다. 김제풍류 관계자는 "찬란한 농경문화를 꽃피워온 지평선의 고장인 김제역사의 김제정신이 전통춤으로 되살아나는 '김제풍류'를 공연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농민의 땀과 훈이 깃든 가장 순수한 독창성과 예술성은 우리민족의 소중한 문화유산이며, 이러한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계승발전 시키는데 김제풍류가 중심이 되어 그 맥을 이어가고 지역문화 증진에 크게 기여하는 훌륭한 무대였다"고 전했다. /김제=박노태 기자

사임당을 만나다... 완주 둔산영어도서관 '길위의 인문학'

8월 26일까지 총 10회 진행 완주군 둔산영어도서관 길위의 인문학 여정이 시작했다. 29일 완주군에 따르면 올해 길위의 인문학은 '사임당의 후예'를 주제로 총 10회 진행된다. 지난 24일 첫 시작과 함께 오는 8월 26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첫 번째 주제는 '신사임당의 초충도와 강릉자수로 (민화는 민화다)의 저자 정병모 교수의 강의로 진행됐다. 민화의 주인공은 대부분 이름도 없는 작가들, 그 중에 여류화가이자 울곡 이이의 어머니로 잘 알려진 신사임당과 그와 같은 여류작가들의 작품을 엿보고 작품속의 개체에 담긴 의미

를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다. 초충도에 담긴 식물, 동물, 곤충에 숨겨진 의미를 찾아내고 그를 통해 추구했던 세계관을 되짚었다. 또한, 고단했던 여인들의 삶을 환상적으로 승화시켜 어려움을 헤쳐 나가고자 했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강릉지방의 자수 작품을 통해 그 시대 여인들의 애환과 작품의 가치를 알고 감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내달 1일 진행될 길위의 인문학 2번째 주제는 최유미 강사의 지도로 민화 원데이클래스(신사임당의 초충도)가 있을 예정이다. 둔산영어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 참여 신청이나 내용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전화 063-290-2243으로 문의하면 된다. /완주=이종복 기자